<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5.08.28

카디안 디딤글로벌리더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68372]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카디안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과 전세계 기업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원본손실위험, 환율변동위험, 시장위험, 국가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카디안 디딤글로벌리더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전세계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금융시장 상황, 투자자산군 별 리스크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비중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MSCI AC World Index 35%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 2~3년) 20% + Call 5%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전세계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투자자산군 별 리스크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비중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하여 운용합니다. 다만, 시장상황 급변 등에 따른 자산배분비중 조절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자산배분비중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주식모투자신탁을 통한 외국통화 표시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 카디안 퇴직연금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이 투자신탁은 국내 국공채 등을 주된 투자 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

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지수 대비 펀드의 목표 듀레이션※을 결정한 후, 국채와 공사채 및 회사채 또는 단기채권과 장기채권 간의 상대가치를 분석하여 섹터 및 수익율 곡선상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추구합니다.

▪ 수익률 제고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 추구를 위하여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 유니버스 내에서 신용도 개선이 예상되거나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섹터 또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듀레이션(Duration)이란, 채권에서 발행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서, 금리가 변동하는 데 따른 채권가격의 위험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 카디안 글로벌리더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시가총액 약 2조원 이상의 전세계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매출·이익·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발굴을 위해 애널리스트들의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자료에 기반을 두는 상향식(Bottom-up)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전세계 수천 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내부 리서치를 실시하여 90~100개 기업들로 투자적격 기업 리스트를 구성합니다.

- 브랜드 파워: 높은 이익 마진과 자본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한 가격 선정 능력을 보유한 기업
- 반복적인 매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 확보되어 반복적인 매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
- 글로벌 기회: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

▪ 투자적격 기업 리스트 내의 종목들을 대상으로 이익의 성장성 및 변동성, 현금흐름의 안정성, 기업 총수익 등을 분석 및 고려하여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주주 환원가능 현금흐름을 계산 및 활용하여 성장주 투자가 내재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의 투자는 AGF Investments Inc.에서 운용업무를 위탁 받아 운용합니다.

※ 상향식(Bottom-up)투자 : 개별 주식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한 경제상황, 경제 사이클보다는 기업 자체의 전망에 기초하여 종목을 선택하는 방식

※ 투자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7% 이내	1.0100	0.5000	0.80	1.0100	173	279	389	623	1,2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4100	0.9000	1.34	1.4100	145	294	449	776	1,700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35% 이내	0.7600	0.2500	0.68	0.7600	113	193	277	456	97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9600	0.4500	0.91	0.9600	98	201	307	533	1,1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연금저축))	없음	1.3700	0.8600	-	1.3700	140	286	437	754	1,6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없음	1.2000	0.6900	-	1.2390	127	259	395	684	1,506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A형과 C형], [A-E형과 C-E형]의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1년8개월], [약1년8개월]**이나, 이는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및 구체적인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총 보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4.05.01 ~ 25.04.30	최근 2년 23.05.01 ~ 25.04.30	최근 3년 22.05.01 ~ 25.04.30	최근 5년 20.05.01 ~ 25.04.30	설정일이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2015.06.29	9.32	9.00	5.86	4.55	4.26
비교지수		7.30	8.12	5.83	5.63	4.34
수익률 변동성		6.06	5.75	7.19	6.48	6.14

(주1) 비교지수: MSCI AC World Index 35%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0% + Call 5% 설정일로부터 2012.02.29까지 FTSE World Index 35% + KIS국고채만기종합 65%를, 2012.03.01부터 2015.06.28까지 MSCI AC World Local 35% + KIS국고채만기종합 65%를, 2015.06.29부터 현재까지 MSCI AC World Local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0% + KAP Call 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 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혼합채권형, %)				운용 경력 년수 (년)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주식)	방대진	1974	상무	35	2,355	9.88	8.26	9.88	8.26	19.4
책임(채권)	정세은	1986	차장	15	8,908	-	-	9.88	8.26	11.8
부책임(채권)	문성빈	1971	상무	2	3,643	-	-	9.88	8.26	24.1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자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해당 투자신탁의 기초통화와 투자대상자산의 표시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기초통화와 투자자산의 표시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실위험을 축소하고자 이 투자신탁에서는 외화표시자산 대비 한국 원화 변동에 대한 부분환헤지를 실행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에 따른 거래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비용 대비 효용이 줄어든다고[또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환헤지 거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부분환헤지 비율을 축소하거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는 펀드에 각종 비용이 발생하며 환율의 변동방향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수반합니다. 환 헤지 수단이 없는 경우 환율의 불리한 변동은 펀드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화평가액의 90%±10% 수준에서 환헤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해외자산의 가격변동, 외국통화와 원화간의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환헤지비율은 상기의 목표환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도중에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면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될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매입방법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7영업일(D+6)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kardian.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카디안자산운용㈜ 대표번호: 02-2126-3500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www.kardian.co.kr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5년 09월 05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s://www.kardian.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table>
<tr><td>참조</td><td>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 기구의 종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후취 (S)</td><td>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 슈퍼 (S)</td><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6">기타</td><td>무권유저비용 (G)</td><td>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개인연금(P2)</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퇴직연금(P)</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펀드, 전문투자자 등(F)</td><td>전문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랩(W)</td><td>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고액(I)</td><td>납입금액 50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내 가.(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https://www.kardian.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s://www.kardian.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s://www.kardian.co.kr)